

보 도 자 료

「2026 박물관·미술관 주간」 뮤지엄 x 거닐다 ‘전국 4개 권역 로컬 뮤지엄 여행으로 지역 문화의 가치를 잇다

서울·공주·경주·제주 4개 지역, 총 12회차 역사·건축·예술문화 명소 탐방 프로그램 성료

(사)한국박물관협회(회장 조한희)는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한국위원회와 공동으로 추진한 「2026 박물관·미술관 주간」의 핵심 프로그램 〈뮤지엄x거닐다〉를 5월 한 달간 전국 4개 권역에서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뮤지엄x거닐다〉는 지역의 특색 있는 박물관·미술관과 문화 명소를 연결한 로컬 뮤지엄 여행 프로그램이다. 수도권에 집중된 문화향유 기회를 전국으로 확장하고 문화의 다양성을 확산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전문 해설사와 함께 각 지역의 역사·건축·예술문화 자원을 깊이 있게 탐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단순한 관광을 넘어 각 지역이 지닌 고유한 문화자원을 재발견하는 새로운 형태의 문화여행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올해 〈뮤지엄x거닐다〉는 서울·공주·경주·제주 4개 지역을 거점으로 총 12회 운영되었으며, 사전 신청을 통해 참가자를 모집해 무료로 제공되었다. 5월 한 달간 총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참가자들은 지역의 역사·예술·건축 자원을 아우르는 다채로운 문화여행을 경험했다.

각 권역별 프로그램은 해당 지역의 역사·문화적 맥락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경주, 역사로 읽는 도시〉는 천년 신라의 수도 경주에서 도시 전체를 역사 박물관으로 바라보며 주요 문화유산과 박물관을 연계 탐방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다. 〈제주, 뮤지엄 산책 - 제주의 건축을 만나다〉·〈제주, 뮤지엄 산책 - 제주의 뮤지엄을 만나다〉는 제주의 독특한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 문화 및 다양한 뮤지엄 공간을 탐색하는 두 개 코스로 나뉘어 제주 문화의 다층적 면모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서울, 조형으로 만나는 한국의 미〉는 다양한 예술가들의 숨결이 깃든 성북 지역의 미술관·문화 명소를 중심으로 한국 조형예술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코스로 구성되었다. 〈공주, 웅진백제의 흔적을 따라〉는 백제의 두 번째 수도 공주에서 국립공주박물관을 비롯한 웅진백제 관련 유적지를 연계하여 고대 백제 문화의 숨결을 직접 느끼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다.

이번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에게 각 지역만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 박물관·미술관에는 방문객 유입 활성화와 문화관광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참가자들의 프로그램 만족도 및 재참가 의사가 98%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만족 요인으로는 전문가 해설을 가장 많이 꼽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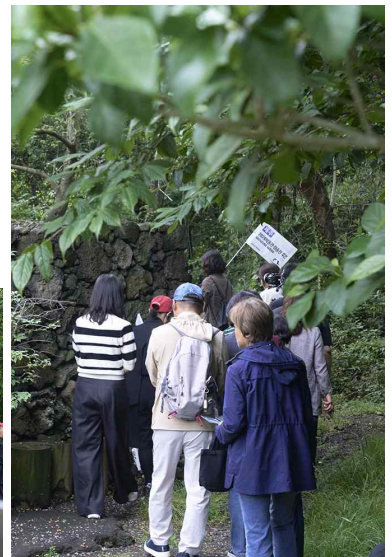
유동룡미술관 박재연 학예팀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뮤지엄x거닐다〉를 통해 제주의 맥락을 담은 ‘건축’이 지역의 문화예술 자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소개될 수 있었다”며, “제주만의 독특

한 풍토와 문화를 담아낸 이타미 준의 대표 건축 코스를 통해 제주의 지역성을 온전히 만나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타미 준이 사람과 자연 사이의 '매개체로서의 건축'을 강조했던 것처럼, 이번 프로그램이 지역과 깊이 관계 맺은 문화예술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 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특히 이타미 준의 '오리지널리티'를 통해 참가자 각자가 자신만의 오리지널리티를 떠올리고 고민해보는 여정이 되셨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크리에이터 아이고바트(iGoBart)은 제주도 문화예술여행 콘텐츠 제작을 위해 <뮤지엄×거닐다> 프로그램의 방문지로 선정된 박물관과 미술관을 직접 찾았다. 아이고바트(iGoBart)는 “짧은 일정이었음에도 본태박물관을 비롯해 김창열미술관, 이타미 준 뮤지엄, 그리고 이타미 준이 설계한 여러 건축물까지 방문할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각각의 공간이 저마다 고유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지만, 무엇보다 건축가들의 삶과 철학, 그리고 그 공간이 탄생하게 된 배경 이야기가 가장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한 이야기들이 단순한 공간 방문을 넘어 훨씬 더 풍부하고 깊이 있는 경험으로 이끌어 주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사)한국박물관협회(회장 조한희)는 “「2026 박물관·미술관 주간」에 참여한 박물관·미술관 중 일부는 전시가 6월까지 계속되는 곳도 있어, 5월 중 방문이 어려웠던 관람객들도 보다 여유롭게 전국 박물관·미술관의 특색 있는 기획전과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더 많은 국민이 박물관·미술관을 가까이하고, 일상 속에서 문화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자세한 행사 내용 및 프로그램 일정은 박물관·미술관 주간 공식 누리집(www.뮤지엄위크.kr)과 공식 SNS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뮤지엄×거닐다
 <제주, 뮤지엄 산책 - 제주의 건축을 만나다>
 ©한국박물관협회

□ **사업 개요**

- (사업명) 「2026 박물관·미술관 주간」
- (주간기간) 2026. 5. 1.(금) ~ 5. 31.(일), 31일간
 - (개막식) 2026. 5. 4.(월) 14:00(예정), 모란미술관
 - (세부프로그램 운영) 주간 기간 포함 최대 3개월 내외
-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박물관협의회 한국위원회(ICOM KOREA)
- (주관) (사)한국박물관협회
- (주제) ‘분열된 세상을 하나로 잇는 박물관’ (Museums Uniting a divided world)
- (추진 목적)
 - 주간 내 전국 단위의 다양한 행사 운영을 통해, 국민 생활 속 박물관·미술관 인식 확산 및 문화의 일상화 실현
 - 박물관·미술관 정체성에 기반한 참신한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국민의 문화향유권 제고 및 박물관·미술관 활성화 도모
 - 박물관·미술관의 지역 정체성을 확립, 지역 문화 거점으로서의 위상 강화
- (추진 방향)
 - (2026년 ICOM 주제 연계) ICOM 주제인 ‘분열된 세상을 하나로 잇는 박물관(Museums uniting a divided world)’ 를 반영하여 전 세계적 박물관 트렌드와 보조를 맞춘 시의적절한 주제로 운영
 - (함께 누리는 문화, 문화로 매력있는 지역) 지역문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기획 및 운영
 - (지역 정체성 제고) 각 박물관·미술관을 거점으로 지역 내 다양한 콘텐츠를 연계·활용한 콘텐츠 개발하여 지역성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 운영
 - (특화 콘텐츠) 다양한 콘텐츠를 보유한 각 박물관·미술관의 특성(소장품, 특화전시, 지역성 등)을 반영한 특화 콘텐츠 및 실험적인 신규 콘텐츠 개발
- (주요 프로그램)
 - (「뮤지엄×즐기다」, 18개관 16개 프로그램)
 - (「뮤지엄×거닐다」, 4개 지역 12회차)
 - (「뮤지엄×만나다」, 50개관 50개 소장품)

<주요 실적('23~'25년)>

구 분	'23년	'24년	'25년
참여관 수	298개관	335개관	361개관
향유자 수	1,018,264명	857,676명	1,330,261명

□ ‘뮤지엄×거닐다’, 전국 4개 권역 로컬 뮤지엄 여행… 역사·건축·예술문화 명소를 잇다

‘뮤지엄×거닐다’는 지역의 특색 있는 박물관·미술관과 문화 명소를 연결한 로컬 뮤지엄 여행 프로그램이다. 수도권에 집중된 문화향유 기회를 지역으로 확장하고 문화의 다양성을 확산하고자 기획되었으며, 각 지역이 지닌 고유의 문화자원을 재발견하는 새로운 방식의 문화여행 경험을 제공한다. 아울러 지역 박물관·미술관에는 방문객 유입 활성화와 문화관광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는 서울·공주·경주·제주 4개 지역을 거점으로 총 12회차로 운영되며, 회차당 약 20명 내외의 소규모 인원을 사전 신청으로 모집한다. 경주에서는 〈경주, 역사로 읽는 도시〉, 제주에서는 〈제주, 뮤지엄 산책 - 제주의 건축을 만나다〉·〈제주, 뮤지엄 산책 - 제주의 뮤지엄을 만나다〉, 서울 성북에서는 〈서울, 조형으로 만나는 한국의 미〉, 공주에서는 〈공주, 웅진백제의 흔적을 따라〉가 각각 운영된다. 참가자들은 전문 해설사와 함께 각 지역의 주요 박물관·미술관 및 문화 명소를 깊이 있게 탐방하며, 그 지역만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특별한 경험을 누릴 수 있다.

□ ‘뮤지엄×거닐다’ 프로그램 참여기관 : 유동룡미술관

유동룡미술관(ITAMI JUN MUSEUM)은 건축가 겸 아티스트 이타미 준(유동룡)의 흔적을 따라가며 ‘나의 오리지널리티’를 발견하는 곳입니다.

본질에 집중하고 근원을 탐구했던 아티스트, 자연에 순응하는 야성의 건축과 손의 감각이 살아있는 순수한 조형을 추구했던 건축가 이타미 준. 그의 한국 이름은 유동룡입니다. 제일 교포 건축가로 끝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한국과 일본의 경계에서 활동했던 유동룡. 그는 치열하게 자신의 오리지널리티를 추구하고, 나아가 물질과 자연의 본질에 집중하며 독자적인 세계를 구축했습니다.

제주도에 자리한 유동룡미술관은 유동룡의 딸 유이화가 설계하고 건축한 ‘이타미 준 세계의 완성체’입니다. 연면적 700㎡, 지상 2층 규모의 공간에 1970년부터 2011년까지 유동룡이 남긴 건축 작품과 회화·서예·조각 등의 예술 작품을 전시하고, 그의 수집품과 저서도 소개합니다. 또한 본질에 집중하고 고유한 방식으로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젊은 창작자들과 교류합니다.

“건축은 자연과 나 사이의 새로운 세계를 매개하는 무엇”이라 했던 유동룡의 말처럼, 유동룡미술관은 개인의 오리지널리티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게 하는 매개체가 되고자 합니다.

Q.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뮤지엄×거닐다」 제주 코스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직접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며 느낀 이번 사업의 의미와 제주 코스만의 특징은 무엇이며, 관람객들이 이번 여정을 통해 어떤 경험과 가치를 얻어가길 바라시나요?

「박물관·미술관 주간」은 전국의 박물관·미술관이 한데 모여 문화예술로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행사로, 본 프로그램을 통해 제주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의 기관들과 연결되고, 나아가 폭넓은 참여자분들과 가깝게 호흡할 수 있다는 점에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제주에서는 「뮤지엄×거닐다」를 통해 제주의 맥락을 담고 있는 ‘건축’이 지역의 문화예술 자원으로서 적극 소개되었고, 제주만의 독특한 풍토와 문화를 담아낸 이타미 준의 대표 건축 코스를 통해 제주의 지역성을 온전히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타미 준이 사람과 자연 사이의 ‘매개체로서의 건축’을 강조한 것과 같이, 지역과 밀접하게 관계맺은 문화예술과 그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특히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소개했던 이타미 준의 ‘오리지널리티’를 통해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나만의 오리지널리티를 떠올리고 고민해보는 여정이 되셨기를 희망합니다.

유동룡미술관 / 박재연 학예팀장

□ ‘뮤지엄×거닐다’ 프로그램 참여기관 뮤지엄 방문 후기 ‘제주도 문화예술여행’

크리에이터 아이고바트(iGoBart)

아이고바트(iGoBart)는 서울에 거주하는 네덜란드인 바트 반 그눅튼(Bart van Genungten)이 운영하는 유튜브 및 SNS 채널입니다. 한국을 누구보다 애정 있게 바라보는 외국인의 시선으로, 유명 관광지 너머 서울의 467개 동네를 직접 발로 탐방하는 시리즈 “Welcome to My Dong”을 통해 골목과 역사, 사람들의 이야기를 카메라에 담고 있습니다. 서울 명예시민 선정, 2025 서울 인플루언서 어워즈 수상, 2023 한국 방송 비평상 소셜미디어 부문 수상, 북한여행기 『직향은 없다』출판 등 한국과 가장 깊이 연결된 외국인 크리에이터로서, 한국어·영어 이중자막을 통해 국내외 시청자 모두에게 진정성 있는 콘텐츠를 전달합니다.

Q1. 이번에 방문한 박물관·미술관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전시나 공간은 어디였나요? 그 이유도 함께 알려주세요.

제가 방문한 박물관·미술관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은 본태박물관(Bonte Museum)이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이 공간이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다다오가 설계한 건축물이라는 점입니다. 그의 철학은 건물 자체는 물론, 건축과 주변 자연환경의 관계 속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박물관은 좋은 의미에서 잘 조직된 혼돈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일부러 길을 잃어가며 공간들을 탐험했

고, 그 과정 자체가 하나의 경험이었습니다. 전시된 작품들 역시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유명한 국내외 현대미술 작가들의 작품뿐만 아니라, 역사적 유물과 한국의 전통 공예품들도 함께 소개되고 있었는데, 단순히 아름다운 것을 넘어 한국의 민속문화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물론 박물관이 자리한 위치 자체도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주도의 많은 미술관과 박물관에도 해당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주도는 정말 따라올 곳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Q2. 콘텐츠 크리에이터로서 영상·사진으로 담기 좋았던 포인트가 있었다면 어디였나요?

콘텐츠 크리에이터에게는 결국 자신의 관심사와 연결되는 모든 장소가 좋은 촬영지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고, 영상은 제가 사용하는 매체입니다. 늘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나 숨겨진 이야기를 찾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제주도는 창작자들에게 놀라운 무대입니다. 아름다운 자연경관만으로도 훌륭한 배경이 되어주지만, 한 장소를 진정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그곳에 담긴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박물관의 역사, 그것을 만든 사람들, 그리고 공간을 형성한 철학과 아이디어는 단순히 아름다운 외관보다 훨씬 더 흥미로운 촬영 소재가 되곤 합니다.

이번 짧은 일정 동안 본태박물관 외에도 김창열미술관, 이타미 준 뮤지엄, 그리고 이타미 준이 설계한 여러 건축물을 방문했습니다. 각각의 공간은 저마다 아름다웠지만, 저를 가장 매료시킨 것은 건축가들의 삶과 철학, 왜 그런 공간이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배경 이야기, 그리고 그 안에 전시된 작품들이었습니다. 그런 요소들이 공간 경험에 훨씬 더 깊은 층위를 더해주었습니다.

장소 그 자체는 하나의 무대에 불과합니다. 결국 그 장소를 오래 기억하게 만드는 것은 그 안에 담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장소가 촬영하기 좋은 곳인지를 판단하는 기준도 바로 그 이야기에 있습니다.

Q3. 구독자·팔로워분들께 이 박물관·미술관을 추천하는 이유를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추천하는 장소들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경험에 기반한 것이며, 제주를 대표하는 정답 같은 가이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누구나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간단히 검색만 해도 제주에서 꼭 가봐야 할 장소 목록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비슷한 장소들이 반복해서 추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모두가 같은 이야기만 반복하는 일종의 '에코 챔버'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제가 더 흥미를 느끼는 것은 그 밖에 무엇이 있는지를 발견하는 일입니다. 본태박물관은 이미 꽤 유명한 곳이고 그만한 이유도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방문한 다른 미술관, 건축물, 그리고 건축 작품들 중에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못지않게 아름답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품고 있는 곳들이 많았습니다.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려는 호기심이 있다면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장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곳들을 진심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아직은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처럼 느껴지지만, 그곳에서 얻는 경험과 기억은 유명한 관광지 못지않게 오래도록 남기 때문입니다.

Q4. 방문 후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 한 장면이나 작품은 무엇인가요?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 순간은 본태박물관에서 꼭두를 주제로 한 전시를 보았을 때였습니다. 꼭두는 전통적으로 상여 위에 장식되던 작은 목각 인형으로, 망자가 저승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고 동행하는 존재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한국인이 아닌 저에게는 거의 알지 못했던 한국 문화의 한 부분이었기에, 현대미술관에서 이러한 전통 문화를 접하게 된 것이 매우 신선하고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또 하나의 인상적인 경험은 백남준의 작품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와 여러 미술관을 통해 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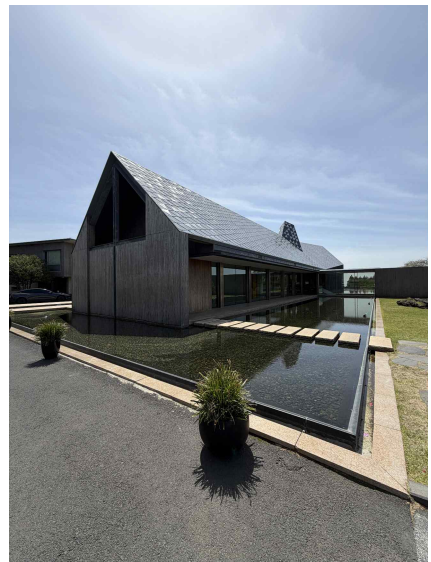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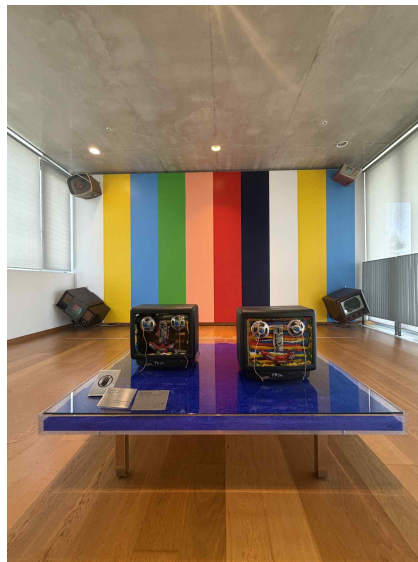
에도 그의 작업을 접한 적이 있었지만, 본태박물관에서 본 작품 중 하나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백남준의 작품이 되었습니다. 특히 제 아내 역시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탐구하는 예술가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과 예술의 경계를 개척했던 그의 선구적인 접근 방식에 더욱 깊은 공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주교회를 방문했던 경험 역시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건축가 이타미 준이 설계한 이 건축물은 노아의 방주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졌으며, 제주의 자연 풍경과 아름답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현대 교회 건축물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공간 중 하나였습니다. 유럽 출신인 저에게 교회를 방문하는 일은 비교적 익숙한 경험이지만, 이처럼 현대적인 성스러운 공간이 역사적인 교회들 못지않은 깊은 울림과 기억을 남길 수 있다는 점이 특히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Q5. 박물관·미술관을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관람 방법(꿀팁)이 있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큰 팁은 방문하기 전에 건축가와 건물, 그리고 전시된 작품들에 대해 조금이라도 미리 알아보는 것입니다. 아무런 배경지식 없이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둘러보면 때로는 그저 여러 물건 사이를 빠르게 지나가는 경험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정보만 알고 가더라도 작품과 공간을 바라보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고, 훨씬 더 깊고 의미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많은 것을 공부하거나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호기심과 예상치 못한 발견을 위한 여유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 순간들은 종종 걸음을 조금 늦추고, 그 공간과 경험 자체를 천천히 즐길 때 찾아오곤 합니다. 제주의 미술관과 박물관을 방문한다면,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크리에이터 아이고바트(iGoBart)



사진제공 크리에이터 아이고바트(iGoBart) / ©iGoBart

□ 메인 포스터 2종



□ 주요 프로그램 포스터 3종

